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
쿠스모토분유 지음|지성 옮김|클리어마인드 펴냄|1만2000원

禪語를 통해 인생 처세술 배운다

초조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6조 혜능 선사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분파해 화려한 꽃을 피운 선(禪)의 세계가 일상을 노크한다.

중국 송나라 유학승으로 일본 차조(茶祖)로 불리는 에이사이 선사(榮西, 1141~1215), 가마쿠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동종(曹洞宗) 종조 도겐 선사(道元, 1200~1253), 중국 명나라 유학승으로 일본의 음다풍 전차법(煎茶法) 시조인 인겐 선사(隱元, 1593~1661)로부터 전등(傳燈)돼온 선어를 갈무리했다.

#현대인의 고정관념, 그 틀을 전환하고 확장하라.

역자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삶의 질이 윤택해 진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렵다고만 여겨지는 까닭은 물질로만 치닫기 때문이다. 보이는 물질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선어에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안목을 갖추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은 백선(百選)된 선어의 진수를 평이하게 해설해 선에 대한 부담과 거리감을 덜었다. 언어문자를 희롱하거나 지나치게 유희하지도 않으면서 행에 의한 체득의 종교인 불교의 진리를 추구한다. 불성인 순수한 인간성과 대면하는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선사의 의단(疑團) 속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무문관> 제1칙 '무(無)'자 화두는 선어의 시작이다. 개의 불성에 과한 유(有)·무(無)는 상대적이고 상식적인 유·무를 초월한 차원이다. 상대적인 유·무에 사로잡히면 미혹과 번뇌를 일으켜 분별하게 되고 본래면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로써 선종의 관문이 열리고 100가지 공간 속으로 궤도열차는 달려간다.

순수하고 진실한 본래 주인공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잊거나 놓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원인은 스스로 주인공을 무시하는 이유다. 인간소외, 인간 상실이라는 말로 외부 현상 탓만 하고 있으니 현대인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선사들의 의단(疑團) 속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을 따라 선의 오솔길을 동행하다보면 내가 머무르는 이곳이 선당(禪堂)임을 알게 되고 본래 자아의 현전과 마주하게 된다. 인생의 진실성, 본래 자기를 출현하는데 있어 본래 마음자리를 다독이고 재점검하는 진솔함과 만나는 시간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결가부좌 연습
정암 지음 | 선(禪)펴냄 | 1만원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신음하면서 산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불이정신(不二精神)과 중심본성이 계합된 깨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게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은 <결가부좌 연습>에서 "깊은 선정(禪定)과 명상(冥想)에 몰입 됐을 때 자재인생(自在人生)이 가능하다"며 "명상 또는 참선 수행의 중요한 목적은 깨어 있는 마음의 생명인 혜명(慧命)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가부좌연습>은 명상에 입문하거나 긴 시간 선정에 몰입하고자 하는 수행자, 그리고 명상과 참선을 지도하는 선지식이 참고하기에 알맞은 내용의 '해설'과 '수련'편으로 구성됐다.

해설 편에는 결가부좌연습의 △각 신체부위의 한기정화 △근육이완 △완성자세 △1~3시간 결가부좌 등 결가부좌 연습의 이론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수련'편에서는 '해설'편에서 다룬 이론을 바탕으로 그림·사진과 함께 실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나은 기자

광덕스님 시봉일기
송암 지원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2000원

한국 불교계의 대각구국구세(大覺救國救世)의 사상가 금하당 광덕 대선사(金河堂光德大禪師) 입적 10년을 맞이해 <광덕스님시봉일기> 11권이 완간됐다.

"나는 죽는 몸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불광 운동을 계속 할 테야" 광덕 대선사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다. 광덕 스님의 상좌인 송암 스님은 스승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스승이 다시 태어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광덕스님 시봉일기>는 송암 스님이 범어사 행자생활 때부터 대각사·보현사·불광사 등 여러 곳에서 스승을 모시면서 직접 받은 교훈, 감명 깊은 현장, 스승의 인연담을 생생한 현장일기 시리즈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 때부터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전통으로 이뤄진 불경의 결집과정이나, 또는 서구나 동양에서 소크라테스나 예수, 공자의 기록, 경전들이 역시 제자들에 의해 완성된 과정에 비견되는 소중한 자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자세의 전범을 보여준 감동의 사례이자, '구술사' 연구 자료로서 유례가 드문 일대 장거다. 이나은 기자

마음에서 부는 바람 - 내가 사랑한 부처님의 말씀들
김의정 지음 | 이른아침 펴냄 | 1만5000원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끊으니 두두물물(頭頭物物) 부처님이네"

어머니와의 깊은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접한 저자가 부처님말씀을 들려준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때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윤택한 일상에 비해, 정신적으로 감당해야하는 번뇌와 망상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간다. 어떻게 해야 이 번뇌와 망상,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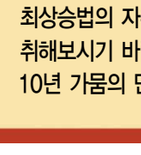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저자 김의정씨는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스트레스와 온갖 번뇌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나눠주고자 그가 사랑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선별해 책을 펴냈다.

어려운 경전 구절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고, 자신의 경험과 역대 큰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덧붙였다. 혼돈의 세상에서 '참나'를 찾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인과경	현담	선
3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9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간단 명료한 불교
스티브하겐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너 자신 외의 그 누구에게서도 피난처를 찾지 마라"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괴로움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괴로움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근원은 우리 스스로가 밝혀 가장 심오하고 실존적인 상태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깨우침은 스스로에게 마음의 자유를 준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四聖諦)를 쉽게 표현한 책, 바로 <간단명료한 불교>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통해 고찰한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주지 않는다. 철저히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그 근본 위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자체로서 깨어 있음, 방심하지 않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기도드릴 대상도,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도, 엎드려 절할 대상도 아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깨어있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즉 깨어있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면 누구나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 간단명료하고 쉬운 말들로 독자들을 깨친다. 총 3부중 1부에서는 사성제, 2부에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중 '도(道)'에 초점을 두고 삶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고·집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고찰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깨달음의 문제를 다룬다. 이상언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9>

경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상과 같이 결집된 경전은 각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른바 무명지중강안명(無名之中强安名), 즉 이름이 없는 자리에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름이 없으면 관리(管理)나 유통이 불편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편리하고 기억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터인데 그 요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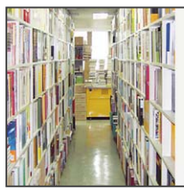
모든 경전의 소전(所詮), 즉 모든 경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주로 인법(人法), 즉 사람[人]과 법(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사람에는 설(說)하시는 이와 청(請)하는 이도 있고, 범부[凡]와 성현(聖賢)의 차이도 있다. 다시 법에는 법설(法說)과 비유(譬喩), 또는 체(體)와 용(用), 또는 인(因)과 과(果), 염(染)과 정(淨) 등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혹은 홀[單]으로, 혹은 겹[複]으로 경의 이름을 이루고 있다. 이를 표(表)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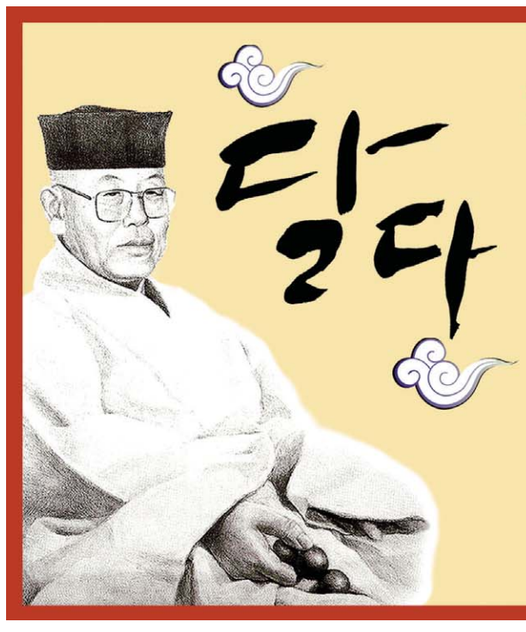
人		從請人得名	①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等
		從說人得名	②무진의보살경(無盡意菩薩經)等
		從所依人得名	③수달라경(須達羅經)·우전왕경(優塡王經)等
		從所說人得名	④금색동자경(金色童子經)等
經	法	法說因	從法體得名 ⑤반야경(般若經)等
			從法用得名 ⑥신족경(神足經)等
		法說果	從因行得名 ⑦정공경경(正恭敬經)等
			從因位得名 ⑧십주경(十住經)等
	喩		從全喩得名 ⑨대운경(大雲經)·보적경(寶積經)等
			從法喩得名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等
			從人法雙擧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等
			從體用雙明 □십주단결경(十住斷結經)等
			從因果雙融 □점비일체지덕경(漸備一切智德經)等
		從說時得名	□시비시경(時非時經)等
		從說處得名	□밀엄경(密嚴經)等

이상 15종의 경명 중 종청인득명(從請人得名)은 설법을 청한 사람의 이름을, 종설인득명(從說人得名)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 사람의 이름을, 종소의인득명(從所依人得名)은 부처님께서 잠시 의지하고 계시던 집 주인의 이름을, 종소설인득명(從所說人得名)은 그날 화제(話題)로 삼으신 주인공의 이름을, 종법체득명(從法體得名)은 설하시려는 진리의 이름을, 종법용득명(從法用得名)은 설하시는 법의 기능, 즉 공덕을 따랐다.

종인행득명(從因行得名)은 설하시는 인행을, 종인위득명(從因位得名)은 인행이 성숙된 상황을, 종전유득명(從全喩得名)은 순전히 비유를, 종법유득명(從法喩得名)은 법과 비유를, 종인법쌍거(從人法雙擧)는 수행하는 사람과 그의 법 모두를, 종체용쌍명(從體用雙明)은 체와 용 모두를, 종인과상응(從因果雙融)은 인과 과 모두를, 종설시득명(從說時得名)은 설법하시던 시기를, 종설처득명(從說處得名)은 설법하시던 곳을 따랐다는 내용이다.

혹자(或者)는 말하리라. 우리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만 해도 1511부, 6802권, 8만1258매요, 일본의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은 비록 자기조상들의 저술까지를 포함시켰지만 2500여부인데 겨우 이 십오항(十五項)으로 경전의 대의운운(大義云云)하시니, 과장(誇張)이 아닌가라고. 그렇다. 맞는 말이다. 창해일속(滄海一粟)으로도 비유가 안 되지만 이야기를 하자니, 이렇게라도 얼개를 쳐야겠기에 늘어놓은 것이다. 마치 서산에 지는 달을 설명하는데 부채라도 들고 떠들어야 흥(興)이 나듯이 말이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딜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 달다 〉!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른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른보인 무문관 / 바른보인 벽암록 / 바른보인 천부경 / 바른보인 금강경
바른보인 신심명 / 바른보인 증도가 / 바른보인 반야심경 / 바른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른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른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른보인 선가귀감 / 바른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보인